

성경의 이란(페르시아) 총정리: 이란과 이스라엘의 최종 운명 이란 이스라엘 본토 공격

지난해 2023년 10월 7일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공격 감행(*)

지상군의 기습 침공, 민간인 공격과 납치, 이스라엘은 즉시 전쟁 시작

이것은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충돌로서 전쟁 초기 6일 만에 사망자 수가 2,800명을 넘어서는 대규모 전쟁이다. 현재 진행형

이러는 가운데 약 6개월 뒤인 현지 시각, 2024년 4월 13일, 이란은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을 보복한다며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 (*) 이란은 350기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을 퍼부었고 이스라엘은 방공망 체계인 아이언돔 등을 활용해 99%를 막아 냈다. (*) 피해는 미미했으나 이란의 첫 본토 공격인 만큼 이스라엘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보복은 분명히 하는데 언제 어떤 식으로 어디를 공격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

오늘 아침 11시 30분경, 보복 공격 시작 (*)

이스라엘 1948년 5월 건국, 이후 4차례 중동 전쟁, 흑시 이란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5차 중동 전쟁, 흑시 세계 대전, 큰 우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관점에서 이란과 이슬람 세계, 이스라엘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에스겔서 38-39장, 곡과 마곡의 전쟁, 흑시 이번 사태가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예수님 재림의 전조가 아닌가? 아무도 모른다. 단언하지 말라. 단언하는 자들 조심.

이란은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특이한 나라이다.

가장 중요한 특징: 국력이 세고 이슬람 근본주의 신봉, 유대교/유대인 박멸 주장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곧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와 미래,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이란이다.

이것은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 주는 명백한 신호

성경에 나오는 이란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이스라엘 건국, 성경대로, 앞으로의 세상일도 성경대로 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류 통치 계획이 예언되어 있다. 유일무이한 책

이란, 한마디로 요약: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이란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원수로 등장하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다. 오늘은 < >, 왜 이란이 이런 일을 하는지, 이란과 이스라엘의 최종 운명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싶다.

구약성경의 이란

성경에서 이란은 엘람(28회) 혹은 페르시아(29회, 기존 성경의 바사)로 나온다.

엘람은 셈의 아들(창10:22), 노아의 손자, 맏아들인 것 같다. (*) 민족들 지도(4쪽),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르박삿, 셈의 아이들은 엘람과 앗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창10:22)

현시대 중동 지도(*), 이란, 이스라엘

1. 이스라엘, 면적 22,000 제곱킬로미터, 남한 면적: 100,000 제곱킬로미터, 남한의 약 0.2배, 인구 930만 명, 수도 예루살렘, 수상 나타냐후

2. 이란: 페르시아어(아랍어가 아니다). 시아파 이슬람 국가, 면적 1,745,000 제곱킬로미터(세계 17위, 남한 면적의 17.5배), 인구 9,000만 명, 수도 테헤란, 현재 에브라함 라이시 대통령
동쪽: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북쪽: 우즈베키스탄

서쪽: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아랍에미레이트 등

3. 이란 국토 면적, 이스라엘의 약 80배, 인구 10배: 수치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상황

4.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슬람 세력에 의해 포위되어 있다.

주님의 재림 도표, (*)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은 두 번의 혹독한 전쟁을 치른다.

1. 곡과 마곡의 전쟁(겔38-39장), 7년 환난기 전

2. 아마겟돈 전쟁(계16장, 19장), 7년 환난기 끝

여하튼 재림의 때 이스라엘,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골칫거리

(*) 스가랴서 12:2-3, 2 보라, 사방 모든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려고 에워쌀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그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하리라. 3 그 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곳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짐을 지는 모든 자는 산산조각 끊어지리라.

성경에 따라 세상 역사는 이스라엘(중동)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원래 거기가 세상의 중심, (*) (*), 판계아 이론
재림 등 관련 책, 도표 등 (*), (*), (*), (*), (*), (*)

구약성경의 이란

1. 창세기 14장을 보면 엘람 사람들의 왕 그돌라오멜이 팔레스타인 침공(BC 2000, 창14:1),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아브라함을 그를 구함, 창14:1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디달의 시대에
2. 엘람 사람들은 활을 잘 쏘며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사22:6)

메대 페르시아 왕국 개관

구약성경은 중동 지방의 국가들 이야기

바벨탑 사건,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 고대 바빌론(BC 1800년경)

그 이후 아시리아 등장,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신 바빌론 등장
느부갓네살 사후 세력 약화, 페르시아의 고레스 세력 강화, BC 549년 메대 정복, 메대 페르시아 왕국,
그리고 바빌론 왕국 정복, 난공불락의 바빌론 도시만 남음, BC 539년 바빌론 도시 정복
그 뒤 BC 330년경 알렉산더 등장 때까지 중동 지방의 패권, 약 200년 동안
바로 이 기간에 바빌론 포로들 귀환,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에스더 사건

다니엘서의 메대 페르시아

세상 왕국들의 변천 내용이 다니엘서에 자세히 기록됨

특히 성경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메대-페르시아 설명, 일단 2장의 형상, 가슴과 두 팔, 은 왕국(2:29),
두 팔은 두 왕국 혹은 두 민족을 나타냄, 바빌론의 영광보다는 못함(*)

그 뒤 다니엘서 7장에 가면 네 왕국이 네 짐승으로 나타난다.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두려운 짐승,
메대 페르시아는 두 번째 짐승인 곰으로 나옴

다니엘서 8장: 다니엘의 또 다른 환상, 마지막 때의 일

8장은 바빌론 이후 일어날 메대/페르시아와 그리스 왕국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 줌

1-2절: 그는 엘람 지방의 수산 궁에 있었음(2절). 수산 혹은 수사는 바빌론 당시에는 미미한 도시,
후에 페르시아의 수도가 됨(느1:1; 에1:2).

3-4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두 뿔 달린 숫양, 나중에 난 뿔이 더 김.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 후에 페르시아로 통합됨
동서남북으로 영토를 확장함, 리비아, 이집트, 소아시아, 인도 등을 정복함.

20절: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

고레스(페르시아 사람): 대언자 이사야는 이미 180년 전에 고레스의 이름을 기록함(사44:28), 그를
목자요, 기름 부은 자로 부름(사44:28; 45:1), 하나님의 일을 집행할 자(사45:3-4), 바빌론
포로 생활 귀환 명령

메대 사람 다리오는 바빌론을 정복한 뒤 바빌론 도시의 왕으로 세워짐(BC 539, 단5:31; 9:1).

2-3년 후에 고레스가 메대/페르시아/바빌론 등을 통합하여 전 제국의 왕이 됨(BC 536)

에스더기와 느헤미야기 전반부는 페르시아시대의 일이다. 아하수에로(에스더), 아닥사스다(느헤미
야), 다리오(학개 스가랴 당시) 등

중요한 점: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스라엘을 도움

그런데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시대, 하만 등장, 유대인 멸절 계획
 유대인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는 시도를 막음, 페르시아 시대, 그 뒤 부림절
 그 뒤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 페르시아 정복(단8, BC 331)
 그 이후에 페르시아는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받음

신약 시대 이란

로마 시대, 1. 예수님 탄생 시 동방 박사들이 온 것으로 전해지는 나라

2. 신약성경 오순절 사건(행2:9): 우리는 바대(파르티아)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3. AD 636년 무슬림들의 지배(조로아스터교에서 이슬람교), 그리고 몽골 칭기즈 칸 침략 및 지배
4. 1501년부터 1746년까지 대이란국 페르시아 사파비 왕조, 이슬람 시아파 국가, 국왕을 샤로 부름
5. 1900년대 초반까지 이란은 국제무대에서 무명 국가

그러다가 이란에서 석유 발견, 영국과 러시아가 이란의 고원 지대 쟁탈전, 이란 국제무대 등장
 6. 1921년에 레자 샤가 군사 쿠데타, 1925년 팔레비 왕조 형성, 팔레비 1세, 1935년부터 페르시아 대신 이란 제국으로 부름, 그 뒤 그와 그의 아들인 팔레비 2세가 약 50여 년 통치
 레자 샤는 이란의 완전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하여 모든 분야에 걸쳐 개혁을 단행하였다. 또한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수 백 명의 젊은이들을 유럽으로 보내어 근대적 교육을 받도록 지원하였다. 레자 샤의 재임 기간 동안 이란은 근대화된 국가로 변화했으며, 중산층이 증가하고, 산업이 발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레자 샤는 이란의 근대화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았지만 이란을 전통적인 이슬람 국가로 이끌기를 원했던 성직자들과는 갈등관계가 지속되었다.

팔레비 왕조는 공포정치로 이란을 통제했고 이슬람 민족세력의 탄압과 언론통제로 국정을 장악했다. 또한 대규모 비밀경찰을 조직하여 이슬람 민족세력과 성직자에 대한 사찰과 감시를 강화했다. 1956년 제2차 중동전쟁 이후 팔레비 왕조와 미국은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미군은 이란에 주둔하였으며 중동지역에서 소련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1963년, 팔레비 왕조는 농지개혁, 여성 참정권 등 6개 항목의 국정대개혁(백색혁명)을 강행했고, 원유수출로 쌓인 국부를 바탕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서구적인 국가 정책과 문명의 개혁은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이슬람 성직자들과 갈등은 극에 달했으며 팔레비 왕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었다. 더구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팔레비 왕조는 경제정책의 실패로 재정 수입원의 대부분을 석유에만 의존하게 되었으며 현대적 개혁을 향한 왕조의 의지는 친서구적인 것으로 비난받게 되었다. 결국 팔레비 왕조는 아야톨라 호메이니(Ayatollah Ruhollah Khomeini)가 이끄는 1979년의 이슬람 혁명에 의해 무너졌다.

이란이라는 이름: 아리안주의(Aryanism)를 추종하면서 불리기 시작한 이름(*), '아리안'(Aryan) 이란 단어는 이란과 인도의 고대 언어에서 유래되었다. 문자 그대로 '아리안'이란 단어는 "고귀하다"를 의미하며 아리아 인종이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냄, 우월감, 반 셈족주의

20세기 독일 나치, 아리안 주의, 유럽에서 인종적으로 열등한 비 아리아 인 사람들의 종말을 요구하면서 유대인들이 희생양이 되어 600만 명이 죽는 일,

이란 호메이니의 혁명

1979년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이란 혁명, 그 뒤 급진 이슬람 정권, 그전과는 달리 극심한 반 유대인, 반미 정책, 친 러시아 정책, 아무도 이란이 친 러시아로 설지 몰랐다. 팔레비는 도망감 호메이니는 신정 정치 구현. 서방 문물 배격, 1979년 11월 4일, 미국 대사관 점령, 52명 인질(*)

미국을 '엄청난 사탄'이라 부름, 어리석기로 유명한 카터 때 일어난
 그 뒤 444일 뒤 레이건 행정부 때 문제 해결, 수많은 조건 수용, 1989년 호메이니 사망
그러나 이란은 국제 테러, 유대인 박해, 7세기경의 이슬람 국가로 돌아감

이때부터 국제 이슬람 테러 조직 확산, 지하드(성전),

현시대 모든 테러는 호메이니에게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음.
 이들은 현재 탄도 미사일을 소유하고 핵을 탑재하려 함,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소유

러시아가 이를 지지함, 또한 북한이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 제공, 이란과 미사일, 핵 프로그램 공유 이란의 목표: 미국과 이스라엘을 짓밟겠다. 이란 대통령, 이스라엘을 핵무기로 멸절시키겠다. 이란은 오래 전부터 핵무기를 제조하려 하였다. 북한으로부터 이미 핵폭탄 3기를 수입했다는 보고 항상 거짓말, 협약 무시, 북한과 더불어 악의 축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주권

호메이니 등장 전까지는 미국과 유대인들에게 매우 우호적이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

원래 그런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하던 주변 아랍 국가들과 달리 이란은 이스라엘 건국 2년 뒤인 1950년에 일찌감치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승인하고 경제/외교적으로 협력해 왔다. 1960~1970년대 두 나라의 우호 관계는 절정에 이르렀다. 당시 친미 성향인 팔레비 국왕이 통치하던 이란은 미니스커트와 청바지가 유행하던 개방적 사회로 종교만 다를 뿐 이스라엘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중동의 대표적 친미 국가였던 두 나라는 인적 교류가 활발했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개발을 돕고 이란이 이스라엘에 석유를 공급할 정도로 긴밀하게 협력했다.

이슬람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가 세속주의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근본주의 신정(神政) 체제를 구축하면서 두 나라 관계는 단절되고 적대 관계로 바뀌었다. 미국을 적으로 규정한 호메이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슬람의 적이며, 미국이라는 큰 사탄 옆의 작은 사탄”이라고 부를 정도로 적개심을 드러냈다.

지금의 이란은 과거 에스더 시대 페르시아에 존재하던 하만의 영이 다스린다. 하만 유대인 멸절(에스더기) 호메이니 이후부터 이란 대통령들, 이스라엘 멸절이 목표

2012년 8월, 이란의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세계 군대의 궁극적 목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Jerusalem Post, 2012년 8월 2일). 같은 달, 아흐마디네자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제거되어야 할 ‘암적 종양’이라고 칭했고, 이란의 군 최고사령관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환영할 것이며, 그 이유는 이란에게 보복할 이유와 ‘유대인 국가를 영원히 없애 버릴’ 명분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83:2, 4, 2-8)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 때 이스라엘 귀환, 불신 상태, 여전히 예수님을 배격함

고집이 세고 듣지 않음, 결국 7년 환난기 고통을 겪게 됨,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고난의 때 야콥의 고난의 때(렘30),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난(단12, 마24 등)

누가 이 환난을 가져오는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과 러시아 등이다(겔38-39). 곡과 마곡의 전쟁(*), 2,600년 전에 에스겔이 예언함, 여기에 핵심적인 국가들이 바로 이란과 터키이다.

에스겔서 38-39장의 예언에 따르면, 페르시아 군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에 가담할 것이고 최후에는 러시아와 함께 큰 파멸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38장: 2절, 곡과 마곡, 메섹 두발(러시아, 터키), 페르시아와 리비아(5) 등

하나님께서서는 7중 재앙으로 이들의 공격을 물리친다: 지진, 역병, 피 흘림, 홍수, 우박, 불, 유황(겔 38:18, 19-22).

이스라엘이 이들에게 둘러싸여 꼼짝 못할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엄청난 재난(39:11-12, 17-18)

그 결과 주님의 영광(겔38:23; 39:7)

이스라엘 회복(39:28-29), 하나님의 영이 부여짐, 요엘서와 사도행전(욘2:28; 슥12:10; 행2:33) 여하튼 지난 45년간 이란은 반 이스라엘 세력의 중심, 후일에 곡과 마곡의 중심

그러나 곡과 마곡 전쟁에서 보듯이 결국 완전히 망하고 만다.

왜 이란인가?

이와 관련해서 다니엘서는 귀환 예언을 우리에게 준다. 10장에는 다니엘의 21일 금식이 나온다.

여전히 자기 민족의 미래 걱정(14절), (*)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가 오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나타남(*)

영계에서의 전쟁 13절,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영이 막음, 미가엘의 등장

미가엘은 이스라엘 보호 천사(단12:1, 계12)

전체적으로 종말의 때에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대적

이란 관련 예레미야의 대언(렘49:34-39)

하나님께서서 이란의 활을 꺾으신다(35).

그들의 힘의 으뜸 되는 것, 아마도 핵전쟁(36)

완전히 멸절되고 살아남은 이란 사람들이 모든 국가로 피난감(36).

엘람의 수치(37)

하나님께서서 직접 왕좌를 엘람에 세우신다(38). 나중에 그들이 다시 돌아옴(39).

결론

성경은 예언을 담은 책이다.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명백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 회복, 이란의 등장, 곡과 마곡의 전쟁 등이 올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우리들의 전성기(*), 이란의 기독교인들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